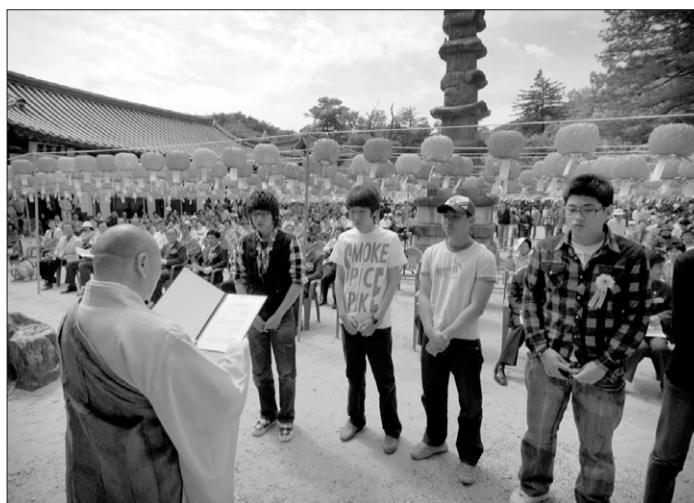


# 충청지역 사찰들 잇단 장학불사

## 마곡사·공주사암련 등 형편 어려운 학생에 자비의 손길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이 5월 12일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과 불자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잇달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마곡사주지 범용은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함께 공주생

명과고등학교 양형석 군을 비롯한 관내 초·중·고등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초등학생 각 10만원, 중·고등학생은 각 20만원씩 지급된 장학금은 신록축제 때 정현 스님 작품 전시회

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지급됐다.

마곡사 관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돈의 모금 방법은 올해처럼 행사를 통해 모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마곡사 자체에서 돈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한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공주지역 사찰들과 천안 및 옥천 지역 사찰들도 장학불사에 나섰다.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성)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공주 호계초등학교 조영주 학생을 비롯한 9명에게 각 20만원씩 지급됐다. 장학금 전달은 초·중·고·대학생별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주사암련 총무 범은 스님은 "불자 여부 보다는, 시에 결손 가정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으로 추천받았

다"며 "장학금은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는 5월 7일 연등축제 행사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모범학생들 10명에게 각 2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매년 11월 진행되는 천안사암련 '일일차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모은 것.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철)는 5월 5일 봉축 법요식에서 옥천상업고등학교 송영환 군을 비롯해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군인 등 10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전달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청직장불자회(회장 이진욱)는 4월 29일 창립 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며 시청불자회와 결연을 맺고 있는 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임남희(23, 뇌병변장애우)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손효선 기자



대전봉축위원장 도산 스님과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국 스님 등 대전지역 스님들이 5월 10일 대전역 광장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펼치고 있다.

## “작은 정성 모아 큰 福 지어요”

### 대전역 광장서 '자비의 쌀 모으기' 탁발행사 가져

대전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국)과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진욱)는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탁발행사'를 진행했다.

5월 10일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는 장국 스님(백제불교회관 관장), 효경 스님(대전비구니 청림회 회장), 영진 스님(영화사 주지), 지안 스님(성심사 주지),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 이진욱 회장, 한국장애인복지회 김춘두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국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전역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지 7

년째다. 행사를 통해 모아진 돈과 쌀들은 좋은 일에 사용됐다"며 "탁발은 가난한 사람도 시주를 통해 복 짓는 일이고, 부자인 사람도 시주를 통해 복 짓는 일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진욱 회장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웃이 나오 인해 나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라며 "불교계가 이웃 종교 보다 남을 돕는 일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한마음으로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탁발 보시금으로 250여만원이 모금됐고, ▲충학사에서 쌀 400kg ▲송학사에서 쌀 200kg ▲용암사와 용궁사에서 쌀 150kg ▲성심사에서 라면 100box ▲관음종도선스님이 양말 300켤레 등을 기부했다.

이날 모금된 보시금과 물품은 대전서구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의 점심 공양과 대전지방경찰청 중앙청사 청사 경비대 위문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 ‘불자들의 인연 만들기’

### 각원사, 200여명 대상 결혼 상담행사

천안 각원사(주지 법인)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의 일환으로 결혼 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결혼 상담은 주지 스님의 제안과 불자들의 요청으로 약 2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해 왔던 것. 하지만 5월 12일 상담은 봉축 특별 상담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각원사에서 결혼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약 200여명. 이중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20여명이다. 모두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었다. 상담은 각원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송계순 소장이 혼자 진행했다. 이는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각원사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소장의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소장은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 중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보고, 조건이 맞는 상대가 있으면 그들의 부모님과 상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양쪽에서 동의할까를 하던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송계순 소장은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당연히 최고겠지만 분명히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조건만 너무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너무 조건만 따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5월 4일 서울 효창공원에 원효성사 성상 앞에서 추모대회를 가진 원효종 스님들.

## 원효성사 열반 1322주기 추모제

### 사부대중 600여명 참석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5월 4일 서울 효창공원 내 원효성사 성상 앞에서 '원효성사 열반 1322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벽송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해 원효성사의 뜻을 기렸다.

벽송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원효성사의 구도정신을 되살려 수행자의 본분을 다시금 상기하자"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추진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노현)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수행공간인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일반인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울창한 송림을 이용해 아토피 환자를 위한 가족 텃밭 스테이 등 차별화된 수련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현 스님은 5월 2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 청주시 불교문화 DVD제작

청주시가 최근 시내 문화재의 기록 보존과 교육홍보를 위해 청주의 문화재 67점을 담은 영상물 VD 전 여장을 제작, 보급에 나섰다.

청주시는 이 DVD를 불교문화를 꽃피운 가치를 비롯해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무형의 가치 등 주제별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영상물 DVD를 일선학교의 역사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청주의 문화재 기록보존과 역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 충담 스님 10주기 영산제

가평 호명산 감로사(주지 지성 스님)는 소신(號身)공양으로 열반한 충담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6월 7일 오후 1시 추모 영산제를 봉행한다.

한 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통일, 불교 증흥을 발원해 온 충담 스님은 1998년 6월 27일 새벽 4시, 장작과 나무 위에 좌대를 만든 후 스스로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손수 불을 붙여 소신공양했다. (031)584-0117

김성우 기자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수선재 역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문이전화 02)722-6653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아무말 없이 빙그레 웃고 있던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죽으려하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나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목적 있게 사는 법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 “무구정광대다라니의 기도 비밀”

불국사 석가탑속에 1,000여년간 간직된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비밀장을 마침내 진세에 중생을 위해 밝게 드러내다

### ■ 본 다라니를 일심정력 승주를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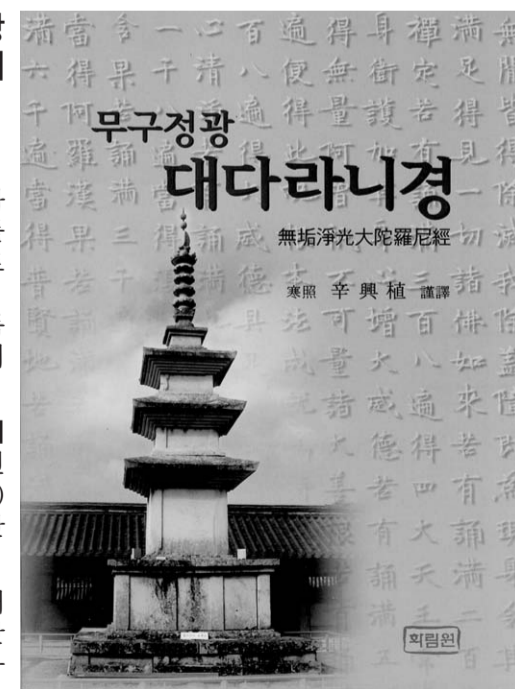
1. 출가자는 일체의 죄를 면하고,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일체의 소원이 원만할것이니, **본 자심인 다라니**를 계를 청정히하며 108편 염송하면 제계장보살이 즉위 현신으로 영기소원이 개실 만족하고 제불여래를 득견현신 할것이요, 약유송만 1,008편이면 수다함과를, 6,000편이면 당득 보현지를, 11,000편이면 부동지를, 111,000편이면 당득 여래 지이며 성 대인상하여 사자후 하리라.

2. 재가불자는 만약 날마다 21편씩 청정하게 무구정광대다라니를 염송하면 백년동안 만족할것이요, 명을 다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항시 염송하는 이는 이내 보리(菩提)에 이를것이며 숙명이 기억되어 영원히 요수(天壽) 및 악한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3. 망자(亡者)를 위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를 찬탄, 예배하고 남에게 널리 이 경을 보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원만하게 77편을 염송하면 망자가 악도에 떨어졌다 해도 곧 응해져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또, 사경하여 불탑에 안치하고 공양올려도 망자는 악도에서 벗어나 도솔천궁에 태어나 다시는 악도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4. 또한, 조상천도, 단명자, 병고자, 각종 위험에 처한 직업자, 고시생, 대입시험, 각종 진급, 사업자, 가정불화, 매매 등등에 시달리는 분은 계를 청정히하며 본 다라니 기도를 일심정력 매일 21편을 승주하면 곧 응해져서 성취하리라. -본문내용 중에서-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24-0163-316

4·6배판 / 108쪽 / 신형식 번역 / 정가 5,000원 / 화림원출판사 / • 구입문의 : (02) 2272-4398(주, 아)